

동우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동우

Coolbiz

동아미디어그룹은 시원한 복장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의 유연함과 창의성을 더하는 차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슈퍼 쿨비즈'를 권장하고 있다. 여름철 출근 복장에서 격식을 조금 덜어내고, 실용을 조금 더해본다면 예전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혁신의 출발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7월, 동아미디어그룹 곳곳에서 쿨 비즈를 입고 '열일(열심히 일)'하는 '패피(패션피플)'들을 만났다.

보도본부 디자인뉴스팀 이철호

내근을 시작한 지 만 1년 만에 처음으로 반바지를 입어 봤습니다. 아직은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끈적끈적한 날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쾌적감을 앞으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뉴스어원 영상편집팀 최동훈

회사에서 입는 옷은 아무래도 단정하고 심플한 옷이 가장 좋죠. 옷이 조금 맛있하면 제가 좋아하는 스웨이드 가죽 구두를 신기도 하고요. 날이 흐린 날은 색깔이 밝은 옷을 입어서 기분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경영전략실 1부팀소속팀원 정세교

제 옷차림을 볼 때마다 주변 친구들이 회사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그날 하루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입사하고 항상 기분 좋게 회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편집국 국제부 최지연

내근 당번이 찾아서 편안한 옷을 주로 입어요. 린넨 소재 옷이 편하면서 단정해보여서 자주 입습니다. 오늘은 몸에 붙지 않아 한층 더 시원한 린넨 통바지를 골랐어요. 모두 쿨비즈룩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봐요!!

뉴스제작-편집부 링크류저널팀 김성규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아이템이라도 깔끔하게 입으면 쿨비즈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흰색 기본 반팔셔츠에 검정 린넨 밴딩 팬츠, 테슬로퍼로 시원하면서도 단정하게 입어봤습니다.



채널A 대표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 100회의 기록

예능의 새로운 이정표 세운 <도시어부> 기억에 남을 성과들

100회 촬영을 기념해 <도시어부> 제작진과 출연진이 완도 향구에 백일상을 차리고 기념촬영을 했다.



"꼭두새벽부터 무슨 굶판이나"

<도시어부> 제작진이 100회 촬영을 앞두고 완도 향구에 백일상을 차렸다. 이경규 씨가 평소 캐릭터에 충실하게 투덜댔다. 제작진이 '용왕의 아들'이라며 그에게 익선관을 씌워주자 흥이 폭발했다는 후문. <도시어부>의 또 다른 터줏대감 이덕화 씨는 "벌써 100회가 되었냐"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채널A 간판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가 8월 1일로 100회를 맞았다. 이날 촬영에는 팔라우에서 황금배지를 땀던 김새론이 특급 케미를 선보였던 추성훈과 함께 출연했다. 신재호 PD는 "100회라고 해서 게스트나 출연자 섭외에 특별히 공을 들이진 않았다. 우리는 그냥 낚시를 하러 갔을 뿐"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국내 방송 예능의 새 장르를 활짝 연 <도시어부>

는 여러 기록을 남겼다. 중장년 취향으로만 생각했던 '낚시'를 젊은 층이 열광하는 콘텐츠로 끌어올렸다. 백화점엔 낚시 용품을 파는 '도시어부관'까지 등장했다. 센스 있는 자막과 연출, 출연자들의 케미가 꾸준한 인기 비결. 지난해 8월 30일 방송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5.776%를 기록했다. 1시간 가량 앞당겨 목요일 밤 9시 50분으로 편성을 바꾼 이후 최근 시청률

이 다시 천장을 뚫고 있다.

장시원 메인 PD는 "날씨든 조황이든 뜻대로 되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큰 사고 없이 100회까지 온 것에 감사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특히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 프로그램을 무사히 만들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다"며 "앞으로도 사고 없이 무탈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시어부>는 미디어커머스 분야에서도 새 장을 열었다. 3월 14일 CU편의점과 콜라보레이션 해 해물짬뽕라면, 어부밥, 젤리, 붕어빵, 어묵바, 햄버거 등 총 7종의 도시어부 스낵시리즈를 론칭했다. 이르면 9월 <도시어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도시어부M도 출시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조아라

“올라운드 플레이어’ 선배들 닮고 싶어요”

DNA 11기 인턴 활동 종료... ‘현장형’ 인재 배출

“타사 방송기자가 없어서 승훈 씨가 마이크를 들게 될 거예요.”

함께 온 영상취재기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우선 마이크를 건넸다. 현장에 나온 방송기자가 혼자밖에 없었던 터라 마이크를 넘겨 받긴 했지만 검고 묵직한 것이 마치 짱돌처럼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는 시원한 대답. 패기를 보여줬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멘토 선배 없이 ‘나 홀로’ 인천 국제공항 터미널에 취재 나온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 남짓.

‘마이크는 어느 방향으로 들까.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하나. 어디까지 따라붙어야 하지.’ 더군다나 상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앞두고 작은 행보도 주목받는 여권의 핵심 인사였다.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양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호흡을 하고 옆에 바싹 붙었다. 노련해 보이는 타사 선배 기자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질문을 이어나갔다. 양 원장은 노련하면서도 공격적으로 그의 질문을 받아쳤다.

나름 무난하게 질문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양 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졌다. “그 근거가 뭔데요?” 양 원장의 미국,

중국 방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나친 홍보란 지적이 나온다고 얘기하자 돌아온 반응이었다. 그는 움찔했다. 순간 정신을 다잡았다.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아버지, 남편이겠지.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자.’ 그러자 이내 마음이 편해졌다. 침착한 목소리로 ‘기자답게’ 능숙하게 대응했다.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형 DNA 인턴 11기’ 최승훈 인턴 기자(A1형) 얘기다. 그는 이번 여름 이렇게 하루하루 ‘기자’를 겪고 느끼고 배웠다.

폭폭 짜는 무더운 날씨. DNA 인턴 11기는 뜨거운 현장에서 성장의 시간을 보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해 DNA 인턴에 승선한 이들은 △D형 10명 △N형 11명 △A1형 10명 △A2형 14명으로 총 45명. D형, A1형, A2형은 각각 신문기자, 방송기자, PD로 한 달가량 현장 활동을 했다. N형은 신문, 방송기자로 절반씩 현장을 누볐다.

‘명품’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DNA 인턴은 언론사 지망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이번 DNA 인턴들도 △다양한 현장 경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1대 1 멘토링 △전문적인 활동 피드백 △업계 최고 수준의 활동비 등을 얻는 특권을 누렸다.

송원중 인턴 PD(A2형)도 이러한 기회를 잡은 ‘특권층’ 중 한 명이다. 학창 시절 직접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만큼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본인 희망으로 <보컬플레이2> 팀에서 전반기 인턴 활동을 했다. 프로그램 시작 전이라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선배들과 머리를 맞댔다. 인턴도 똑같이 주장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열린 회의 방식. 소신 있게 의

견을 냈고 피드백도 받았다. 직접 작성한 티저(예고) 영상 기획안이 채택됐던 얘기를 들었을 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듯하고 행복했다.

<보컬플레이2>가 대학생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촬영 현장에서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준비하는 기회도 얻었다. 오디션 참가자들의 서약서 작성부터 소품 주문, 장비 세팅, 방송 무대 정리까지 경험했다. 그는 “PD 지망생으로 몇 년 공부해도 얻을 수 없던 ‘넓은 시야’를 인턴 기간 몇 주 만에 얻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어느 자리에서도 열정적으로 제 몫을 하는 선배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다. 꼭 닮고 싶다”고 다짐했다.

DNA 11기 서현정 인턴 기자(N형)는 인턴 기간 중 상상도 못했던 미션에 도전했다. 멘토 선배와 함께 프리다이빙(호흡기 없이 잠수하는 다이빙) 체험을 하고 리포트까지

제작한 것. 촬영 전 주말 이를 동안 동네 수영장을 찾아 수영 훈련을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드디어 디데이(D-Day). 취재 및 촬영은 경기 포천에서 오전 10시부터 7시간가량 이어졌다. 3분 남짓한 리포트를 위해 영상취재기자까지 잠수복을 입고 몇 시간 동안 수중촬영에 나섰다. 촬영 결과물은 만족스러웠다. 서 인턴 기자는 “영상 한 컷에 의미를 담기 위해 얼마나 땀을 쏟는지, 협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다. 현장을 사랑하는 치열한 기자가 되고 싶다”며 웃었다.

이렇게 DNA 11기는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속에서 ‘준비된 기자·PD’로 거듭났다. 박종민 인턴 기자(D형)는 “DNA 인턴은 선별 과정에서부터 워크숍, 멘토링까지 매 과정마다 인턴들에게 최대한의 공을 들여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송원중 인턴 PD(A2형)가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DNA 11기는 8월 2일 현장 활동 종료 직후 기말 시험평가, 면접 등을 치른다. 이를 통해 채용연계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난해 DNA 10기 38명 중엔 13명(34%)이 채용연계로 동아미디어그룹의 식구가 됐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신진우**

“몇 년 공부해도
연기 힘든 ‘넓은 시야’
몇 주 만에 얻어”



서현정 인턴 기자(N형)가 프리다이빙 리포트 제작을 위해 직접 체험에 나선 장면.



최승훈 인턴 기자(A1형, 오른쪽)의 취재 현장 모습.

채널A 새로운 콘셉트 ‘침묵’ 예능 도전

‘눈으로 말해요’ <아이콘택트>
채널A 새 예능 프로그램 라인업

‘낯시 예능’ 장르를 만든 채널A가 또 다시 새 예능 장르에 도전한다. 이번엔 ‘침묵’ 예능이다.

8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아이콘택트>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오직 서로의 눈빛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신개념 ‘침묵’ 예능 프로그램이다. 말이 아닌 ‘눈 맞춤’만으로 출연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다. 강렬한 눈빛으로 모래판을 평정했던 국민 MC 강호동과 다사다난의 아이콘 이상민,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촌철살인의 입담을 자랑하는 슈퍼

주니어 신동이 MC로 나선다. 앞서 진행된 ‘아이콘택트’ 녹화에서는 부모·자녀, 부부, 친구, 롤 모델 등 다양한 관계의 연예인과 일반인 출연자가 눈 맞춤으로 고마움, 화해, 위로 등의 메시지를 건넸다. MC들은 녹화 내내 출연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눈 맞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순간에는 토크의 달인인 MC들마저도 침묵하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제작진은 “토크보다 강력한 침묵이 있는 색다르고 감동적인 예능이 될 것”이라며 “가장 평범한 인간관계에도 각자만의 특별함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은 물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7월 17일에는 채널A 새 예능 프로그램 <리와인드-시간을 달리는 게임>이 첫 방영됐다.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유쾌한 상상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매회 특정 연도를 지정해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이슈에 투자하는 신개념 타임슬립 게임쇼다.

첫 회에서는 1999년으로 돌아가 ‘탈옥 수 신창원 검거’, ‘드라마 <청춘의 덫> 신드롬’, ‘미니홈피 열풍’ 등 당시의 이슈를 다뤘다. 앞으로 이어질 방송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오가며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방송 곳곳에 동아미디어그룹의 기록물도 활용한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김은정



도심 속 보물찾기 ‘그리스 보물전’

9월 15일 까지

B.C.5000년 경 고대 유물부터 그리스를 대표하는 각종 유물까지 ‘신들의 나라’ 그리스에서 온 국보급 유물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그리스 보물전, 아가멤논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까지> 특별전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그리스 문화부와 공동 기획해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그리스 전역의 24개 박물관에서 인류 역사 유물 350여 점을 모아 선보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물들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그리스 문화와 예술에 좀 더 가까워지고 예술적, 인문학적으로 서구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15일까지 오전 11시~오후 8시 문을 연다.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팀 신강혁



새로운 시도 '어바웃 타임'을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쉬는 건가요?”

“이거 정말인가요?” ‘어바웃타임>About Time) 캠페인 공지가 7월 4일 동아광장에 올라오자 질문이 쇄도했다. 어바웃타임 캠페인은 동아일보와 채널A 구성원들이 획일적인 근무 패턴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제안했다. 국실본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프로젝트 휴가, 매달 한 번씩 사용하는 두 시간짜리 보너스 휴식, 휴가 예약제 등 새로운 제도가 새로 생긴 만큼 구성원들의 관심도 뜨겁다. 어바웃타임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장정연

‘어바웃타임’ 주요 신설 제도

제도	프로젝트 휴가	휴가예약제
내용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초과근로를 하게 된 경우 연차휴가와 별개로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	휴가 계획을 미리 e-HR에 등록해두면 인사 등 어떤 변수가 생겨도 휴가를 가도록 보장하는 제도
사용법	국실본부별장이 대상 업무 및 휴가 일수를 정해 해당 업무 종료 이후 휴가 부여. 휴가를 부여받은 사람은 별도의 휴가 신청이나 결재 절차가 필요 없음	e-HR에 신설된 휴가예약 시스템에 그 해 사용할 휴가 일정을 미리 등록
특징	프로젝트 휴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종류는 기준이나 제한이 전혀 없음. 각 국실본부가 업무 특성과 일정에 따라 수시로 자유롭게 설정하면 됨	장기 휴가를 계획하거나, 휴가 준비를 위해 미리 교통편과 숙박을 예약해야 하는 경우에 안심하고 휴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

청년드림센터 실리콘밸리 인턴보내기 프로젝트

미국·일본 10명 출국

“세계 최고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하신 걸 축하 합니다.”

7월 10일 서울 강남구 SW마에스트로 센터에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글로벌 과정 네트워킹 데이가 열렸다. 참석한 대학생들은 ‘역대 최고 인턴십’이라고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해외 스타트업 경험+학점+현지 체류 비용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운영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뢰까지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ICT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0명으로 시작해 올해엔 20명을 미국 실리콘밸리와 일본 도쿄에 보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가 직접 검증한 현지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인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글로벌 과정에 선발된 대학생 인턴 10명이 환하게 웃고 있다.

턴 1명당 항공료와 체재비 등 1500만 원을, 현지 기업이 5000달러(약 590만 원)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다. 현지에서도 IITP 직원이 상주하면서 집구하기, 안전관리, 커뮤니티 활동 등을 도와준다.

성과도 좋다. 열정적으로 인턴십을 마친 학생들 중 현지 스타트업과 정규직 전환 계약을 맺거나 인턴 기간을 연장해 추가로 실리콘밸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절반

정도에 이른다. 국내에 돌아와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이도 적지 않다.

프로그램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 학생을 인턴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현지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동아일보와 IITP는 내년부터는 유럽 등 지역을 확대하고 선발 규모도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청년드림센터 어젠다팀 정지영

오전 10:00
80%

어바웃 타임 Q&A

두 시간짜리 휴가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쓰나요?

어바웃 타임

8월부터 ‘두 시간씩 주어지는 산소 같은 휴식’인 ‘O2(오투)’가 생겼습니다. O2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보너스입니다. 가볍게 쉬는 제도인 만큼 사용 절차도 간단합니다. e-HR stage에 새로 생긴 O2 배너를 클릭해 O2 사용일의 하루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만 등록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소속 부팀장의 결재 절차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휴가라는 게 생소한데 어떤 경우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어바웃 타임

미디어 업종의 특성 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초과 근무가 발생한 경우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화된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국실본부마다 업무 종류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휴가의 발생 기준과 휴식 기간 등 세부 사항은 국실본부별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 편집국이나 보도본부의 경우 올림픽이나 월드컵 장기 출장, 헝가리 유람선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장기 취재 사안이 생긴 경우 프로젝트 휴가 대상과 일수를 자유롭게 정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휴가가 국실본부별로 다르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어바웃 타임

프로젝트 휴가는 업무 스타일이 조직 별로 각각 다른데 휴가 제도는 똑같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즌제 프로그램 제작, 매년 특정 시기에 열리는 박람회나 행사 준비, 갑작스런 대형 사건·사고 등 국실본부마다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프로젝트 휴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합니다.

코어타임(Core Time)과 플렉시블 타임(Flexible Time)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바웃 타임

코어 타임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회의 등 구성원들의 협업이 필요한 일을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부·팀별로 설정한 코어타임에는 협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플렉시블 타임으로 설정해 유연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소 같은 휴식을 즐겨보세요



어바웃 타임 캠페인을 통해 새로 생긴 ‘O2(오투)’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매달 두 시간씩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다. O2라는 이름은 사내 공모를 통해 지어졌다. ‘산소 같은 휴식 시간’이라는 뜻을 담은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윤수경 매니저의 제안이 채택된 것. 윤 매니저에게는 산소 같은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러시 2인 스파클’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 밖에도 두 시간 휴가에 대한 기대가 담긴 명칭들을 제안해준 다양한 사내 구성원들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트콘이 주어졌다.

사용법

O2는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법도 간단하게 만들었다. e-HR Stage에 새로 생긴 O2 배너를 눌러 O2를 쓰고 싶은 날짜와 시작 시간만 입력하면 된다. 연차휴가는 부서장 결재가 필요한 반면 O2는 본인이 사용 하루 전까지 등록만 하면 쓸 수 있다.

바로가기

‘정태수 특종’ 이슈 이끌었던 채널A

에콰도르 현지 추적팀의 11일 취재기

“정태수 아들이 잡혔다던데?”

해외로 잠적했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일가를 세상으로 끄집어낸 채널A 법조팀의 단독 보도는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한 법조팀원의 핵심 취재원이 단초를 제공했고, 법조팀 전원이 퍼즐 맞추기에 들어갔다. 6월 21일 정 회장의 4남 정한근 씨가 해외에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해 첫 보도를 시작했다.

채널A 첫 보도 다음날인 6월 22일 정한근은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사태’의 장본인이자 징역 15년 형을 살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른 횡령 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지 21

년 된 정태수 회장의 아들이다. 정 전 회장 부자의 세금 체납액은 2천억 원이 넘는다. 정한근 씨는 정태수 회장이 지난해 말 사망했다고 증명했다.

채널A는 정태수 회장이 지난해 말 사망했다는 정한근 씨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취재팀을 급파했다. 성혜란 기자, 공태현 기자, 박희현 영상취재팀 기자 3명의 기자가 에콰도르 행 비행기에 올랐다. 첫 보도 뒤 나흘 만이었다.

21시간 비행 뒤 마주한 술한 거절

21시간을 날아갔다. 비행 수속을 밟으면 서도 갖고 있던 카메라 탓에 불시검문 당하기만 수차례. 경유지로 들렀던 뉴욕은 밤하늘만 보고, 다시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과야킬에 도착하자 야속하게도 하루의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었다. 민박집에 짐을 풀자마자 10박 11일의 취재 여정의 막이 올랐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거절이었다. 타운하우스 보안대원은 “당신들에게 집을 보여 주면 나는 잘릴 수도 있다”며 취재진을 돌려보냈다. 비행기 안에서 짜냈던 계획들이 하나둘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정 씨가 자주 들렀던 상가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 씨의 모습과



채널A 법조팀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가 체포된 사실을 최초 단독보도 했다.

출입 기록이 담긴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정 씨의 단골 약국에서도 정중한 거절을 전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취재진이 달고 다닌 한마디다. 예상보다 견고했던 에콰도르인들의 거절을 마주할 때마다 귀국길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더 커졌다.

술한 절실함이 모여 기적이 하나 둘씩 일어났다. 거둬 ‘No’를 외쳤던 타운하우스 보안대원은 거듭된 설득에 취재진 차에 올라타 정 씨의 집을 알려줬고, 때마침 집을 내놓은 임대인 덕에 오피스텔 내부도 촬영할 수 있었다.

과야킬에 있는 장례식장을 하나둘씩 돌며 지칠 때쯤 “류선혜리(정한근의 가명)를 안다”는 말이 돌아왔다. 검찰 브리핑 이틀 전 정 전 회장의 강력한 사망 증거를 찾

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에콰도르인들은 오전 10시가 넘어야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기 전 가게 문을 닫는다. 새벽 일찍 비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고, 해질 무렵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한국 취재진에 그들은 허를 내들렸다.

한국에 있던 법조팀원들과의 협업도 빛났다. 현지 취재 중 알아낸 정한근의 회사 정보를 법조팀원들과 공유해 유일한 집사이자, 간병인과 접촉했다. 인터뷰까지 성사돼 정 전 회장 부자의 에콰도르 거주 실태를 고발했다. 검찰 취재를 통해 기사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건 물론이다.

밤낮 없었던 현장 취재

밤낮이 없는 현장이었다. 14시간의 시차 탓에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낮엔 현장을 찾아 해냈고, 저녁엔 기사를 마감했다. 잠든 민박집 아주머니를 깨워 인터뷰 번역을 부탁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일이 끝나면 다시 인터넷을 붙잡고 정 씨의 행적을 검색했다. 때로는 빨리 기사를 쓰고 싶어서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에콰도르 취재팀 3명이 서로 격려하고 의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성혜란



에콰도르 과야킬 시내 전경을 담기 위해 공태현 기자(왼쪽)와 박희현 기자가 444개의 계단을 올랐대위 사진. 성혜란 기자가 정한근 저택 근처에서 스탠드업을 하고 있다.

“암병동 특파원 복귀를 신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 4년만에 복귀

안녕하세요. 3년 9개월 만에 ‘암병동 특파원’ 임기를 끝내고 복귀한 황승택 기자입니다. 동우지를 통해 정식으로 복귀 인사드립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채널A 보도본부 편집부로 정식 출근했습니다. 공백이 워낙 길었던 터라 많이 설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첫 출근하는 날 같습니다. 책상에 놓여 둔 신분증은 색이 조금 바랬더군요. 긴 투병 생활이 떠올라 감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회사 신분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비아저씨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인사 했습니다. 남들이 출근할 시간에 항상 집에 있어서 저를 백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서러움을 털어내고 싶어 소박한 객기를 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근무할 1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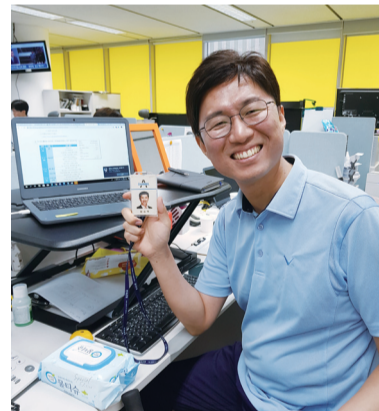
에 들어서자 익숙함과 낯설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선배 동료들과 다시 반갑게 인사할 때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회사하게 리모델링한 사무실 풍경은 ‘내가 이곳에서 일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소했습니다. 얼굴을 전혀 모르는 많은 후배들을 마주하면서는 시간의 공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휴직 전 제가 합숙평가에서 뽑았던 기수 아래로 무려 5기수 후배들이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복귀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편집부에서 메인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는 대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시청자에게 전달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배들이 많이 돕고 싶습니다. 학습모임을 꾸려 데이터 저널리즘을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건강은 잘 지키겠습니다. 2개월에 한번 검진을 받고 있는데 간격이 점점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업무에 적응하느라 복귀 인사 못 드린 선배 분들 차차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후배들도 연락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점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보도본부 편집부 황승택




황승택 기자는 2016년 10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2017년 2차, 2018년 3차 재발을 극복하고 복직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투병과 재발을 꾸준히 도우며 3년 9개월을 기다려 준 분들에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강경우 / 채널A**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대전충청취재본부

 **홍진우 / 채널A**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부산경남취재본부

 **이경운 / 채널A**
편집본부
플랫폼운영팀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 학교

- 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입사 후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한 발 더 뛰어서 채널A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요즘 고향팀 강원fc가 잘해서 매 경기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상위스플릿에 살아남아서 최종 목표인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 ③ 강원일보
- ① ‘일일신우일신’ 매일 나를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최고의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 저는 손흥민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축구 보는 것과 하는 것 모두 좋아합니다.
- ③ KTV
- ① 방송사를 준비하는 많은 방송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인 채널A에 입사하게 된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20대 중반부터 역도, 웨이트를 즐겨했습니다. 최근에는 주짓수에 관심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 ③ MBC PLUS

“동아일보와 ‘동행’합니다”

마케팅분부는 7월 1일부터 동아미디어 그룹 사원확장 캠페인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창간 100주년을 맞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마케팅분부는 사원확장 캠페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카카오톡 이벤트’는 사원들이 플러스친구를 맺고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확장 부수에 따라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등을 지급한다. 신문 사원확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니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1577-7546.

마케팅본부 전략파트 이홍규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제236호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조동주(편집국) 정지영(편집국) 이미영(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택(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신강혁(문화사업본부) 이진걸(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장원재(뉴센테니얼본부) 이기원(편집본부) 신정호(제작본부) 김윤수(보도본부) 강태연(전략기획본부) 김혜성(콘텐츠사업본부) 김우준(경영지원본부) 김민지(동아E&D) 장경국(동아닷컴) 한결(채널A비엔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939)
서울 종로구 창계천로1가 동아미디어센터